통일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48호 【루계 제2303호】

주체103(2014).11.29 토요일 음력 10.8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부대들의 련합협동훈련을 조직지도하시고 항공 및 반항공군 녀성추격기 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72대련합부대와 제630대련합부대 관하 부대들의 련합협동훈련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감시소에 나가시여 련합협동훈련계획을 료해하시고 훈련개시명령을 하달하시였다.

먼저 해상수송집단의 해상이동과 상륙해안으로의 접근시기 반작용하는 적에 대한 소멸방법을 검열판정하고 다음으로 특수작전부대들의 상륙전투와 대상물습격전투능력에 대한 검열판정의 순차로 련합협동훈련이 진행되였다.

훈련이 시작되자 해상에서 불시에 나타난 고속함정들이 노도와 같이 해안을 삼킬듯 밀려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해상수송집단의 침로와 상륙대형편성을 지켜보시며 해상이동때와 상륙해안접근때 적들의 반작용을 제압하기 위한 방안들과 그에 따르는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이어 특수작전부대의 상륙전투와 대상물습격전투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안에 상륙한 특수작전부대의 전투원들이 《적》대상물을 향하여 번개같이 돌격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정말 잘 싸운다고, 그 어떤 적이든 저런 전투원들이 들이닥치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것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련합협동훈련의 전 과정을 주의깊게 보신 다음 오늘 진행된 훈련결과를 평가하시고 극복해야 할 결함들과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녀성추격기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행장활주로에 나가시여 녀성추격기비행사들의 리착륙단독비행훈련계획을 료해하시고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녀성추격기비행사들의 단독비행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대단하오, 정말 잘타오, 불사조요, 불사조라고 못내 자랑스러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훈련이 끝난 다음 녀성추격기비행사들인 조금향, 림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그들의 비행훈련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과 몇개월전에 녀성추격기비행사들을 양성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는데 오늘 이렇게 훌륭히 성장한 녀성추격기비행사들의 용감무쌍한 훈련모습을 보니 대단히 만족하고 기쁘다고 하시며 남성들도 타기 힘든 추격기를 나어린 처녀들이 단독으로 탄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기특하고 대단하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녀성추격기비행사들이 앞으로도 건강한 몸으로 비행훈련을 더 맹렬히 진행하여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억세게 준비해나감으로써 영웅조선의 효녀들답게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켜가는 값높은 인생을 아름답게 빛내이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와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영화화면에 옮긴것을 비롯하여 수백편의 만화영화를 제작하였으며 세계적규모에서 주문 및 합작만화영화들도 창작하였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1창작단, 2창작단의 원도창작실, 배경창작실, 합성록음실, 대사록음실, 편집실, 시사실 등을 돌아보시면서 만화영화창작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의 현대화, 과학화, 콤퓨터화, 수자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의 만화영화는 독창성과 매력, 높은 형상수준과 빠른 창작속도로 하여 세상사람들을 놀래우고있다고, 오래전부터 세계만화영화계에 진출한 우리의 창작가들은 특출한 재능을 보여주어 우리가 도달한 만화영화제작기술을 남김없이 떨치였다고 하시면서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만화영화대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에 대한 당의 기대는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창작기풍을 세우고 드높은 신심과 용기에 넘쳐 한사람같이 떨쳐나 명작폭포로 조선로동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데서 선구자, 기수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제승냥이들과 계급적원쑤들의 야수성과 악랄성, 잔인성을 보여주는 축도이며 력사의 고발장인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1998년 11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이곳을 찾으시였던 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신천박물관의 본관과 사백어머니묘, 백둘어린이묘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제는 침략으로 생겨나고 침략과 략탈로 배집을 늘구며 비대해진 침략의 원흉이고 흉물이라고 하시면서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오늘날에 와서 달라졌다면 저들의 침략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수법이 더욱 음흉하고 교활해진것이라고 하시면서 현시기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활적인 문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착취와 억압을 받아보지 못하고 전쟁의 엄혹한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주력으로 등장한 오늘날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한시도 늦출수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 계급교양을 더욱 심화시키고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신천박물관을 계급교양거점의 본보기로 될수 있게 새로 다시 건설하며 박물관에 자료와 증거물들을 학술적으로 잘 전시해야 한다고, 참관에 편리하게 모든 시설들을 원만히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원한의 밤나무골 화약창고에서 살아나 수십년세월을 하루같이 계급교양진지를 지키고있는 주상원과 23년간 강사로 사업하고있는 박영숙을 만나시고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신천박물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그 이 없인 못 살 아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는 공화국의 인민은 태양이 빛나는 하늘을 더 높이 우러른다.

아, 얼마나 눈부신 태양인가, 얼마나 맑고 푸른 내 조국의 하늘인가.

그럴수록 천만군민의 심금을 울려주며 한편의 노래가 더욱 뜨겁게 새겨진다.

친근하신 그이의 정 가슴에 흘러
자나깨나 그 숨결로 따뜻한 마음
하늘같은 인덕과 믿음에 끌려
우리 모두 따르며 사네
그이 없인 못살아 김정은동지
그이없인 못살아 우린 못살아
우리의 운명 김정은동지
그이 없으면 우린 못살아

그이 없인 못살아, 이 격정의 토로와 더불어 숭엄히 어려오는 화폭은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자신의 한품에 포근히 품어안으시였던 초도의 군인가족들과 아이들,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 눈물바다를 이루며 그이의 옷자락에 매달렸던 온 나라의 소년단원들, 평범한 로동자, 교원, 과학자들을 금방석에 앉혀주시고 그것이 끝없이 기쁘시여 새집들이도 축하해주신 이야기들…

어찌 그뿐이랴.

헤여지기 아쉬워 바다물에 뛰여든 병사들을 보시며 어서 나오라고, 동무들이 나오지 않으면 최고사령관은 떠나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건만 병사들 눈물을 비오듯 쏟으며 바다를 메웠던 장재도와 무도의 이야기를 남기며, 희생된 해병들을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고 몸소 그들을 찾아 한사람, 한사람 불러주시고 영원한 묘주까지 되여주신 전설같은 사연 이 나라 인민을 세차게 울리며 이 땅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 한 공장을 돌아보시면서는 공장이 당이 바라는 수준에서 현대화되면 종업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겠다고 사랑의 약속을 남기신 경애하는 원수님. 드디여 공장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식료품가공기지로 전변되였을 때에는 또다시 찾아오시여 몰라보게 변모된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다고, 겉만 보고서도 현대적인 식료공장이라는것이 알린다고, 공장의 면모가 완전히 일신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실 때 온 나라 인민이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정에 끌려 천만은 매혹되였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그이와 한시도 떨어지면 숨이 지는 운명의 피줄을 이었다.

낮과 밤의 흐름은 변함이 없건만 인민이 단잠에 깊이 드는 한밤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온 넋을 뜨겁게 불태우시였으니 이 나라의 저녁문과 새벽문은 언제나 그이의 손길에 의하여 닫기고 열리였다.

그런 날과 달속에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 한사람한사람의 운명과 생활에 거대한 변혁과 혜택을 안겨줄 원대한 구상과 설계도가 완성되여갔으며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인민사랑의 전설들이 무수히 태여났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과 인민들이 맺고 사는 뜨거운 그 정은 그리움과 고마움의 감정을 넘어 세월끝까지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받들어모실 충정의 노래로 절절히 울려퍼졌다.

천만자식들이 아침저녁으로 소원하는 그것은 하늘땅도 감복하게 하는 눈물겨운것이지만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그러하셨던것처럼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끝없는 헌신의 길을 이어가고계신다. 그이의 사색과 마음, 하시는 말씀과 옮기시는 걸음걸음으로 하여 조국이 비상한 속도로 전진하고 더욱 위대해지고있으며 인민의 행복은 한계를 모르고 커지고있다. 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맑고맑은 공기와 눈부신 해빛,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것이 그이의 모습으로 꽉 차있다. 우리의 삶과 조국, 마중해가는 미래에 대한 의미와 감정이 날이 갈수록 환희로와지고 친근해지며 더없이 소중한것으로 되고있다. 이 세상 그 무엇을 다 준대도 바꿀수 없고 그를 위해서라면 한목숨 다 바쳐도 후회없을 품, 죽어서도 기어이 안기고싶은 그 품은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인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살아온 나날을 돌이켜보며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장엄하고 떳떳하게 선언하였다.

《그이 없인 못살아!》,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으로 우리의 마음은 자나깨나 따뜻하고 우리 마음 그이께서만이 제일 잘 아시여 우리의 어제, 오늘, 래일은 그이의 태양같은 미소로 눈부시다. 천만군민의 존엄높고 행복한 삶은 이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운명적인 하나를 이루었으며 그이 없이 정녕 우린 살수 없다. 이런 노래를 가진 군대와 인민을 당할자가 이 세상 어디에 있으며 수령, 당, 대중의 이렇듯 진실하고 굳고굳은 혼연일체가 이루지 못할것이 또 어데 있겠는가.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날과 달은 력사앞에 다시한번 똑똑히 증명해주고있다.

회한하게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과학자들을 위해 마련한 금방석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연풍과학자휴양소, 세상에 다시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솟아오른 평양육아원과 평양애육원…

내 조국의 가을과 더불어 풍성한 열매로 주렁진 이 가슴뜨거운 인민사랑의 화폭들은 절세의 위인을 모신 우리 인민의 크나큰 행복을 전설처럼 전하고있다.

사랑과 정으로 뜨거운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는 핵무기로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 보루이며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헤쳐 반드시 승리하는 무한대한 힘을 지니게 된다는것을 불멸의 진리로 새겨주고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역적패당은 민족의 최고존엄까지 중상모독하며 극악한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이 날조해낸 온갖 모략자료들을 극성스레 내돌리며 적대세력들이 발광하면 할수록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더 높이 받들어모시고 세월이 무궁토록 따르고 받들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더욱 세차게 끓어오른다.

그 어떤 광풍도 태양의 빛발은 가리울수 없는 법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의탁하고 위대한 혼연일체의 노래를 더욱 높이 부르며 전진하는 공화국 천만군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다.

김 연 희

환호하는 군중에게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인민을 위해 걸으시는 헌신의 자욱

궂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8월25일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던 지난해 5월 어느날은 궂은비가 내리는 날이였다.

늘 바다에서 살다싶이 하며 물에 젖어있어 웬만한 비가 내리는데 대해서는 꿈만해하던 어로공들도 그날만은 구질구질 내리는 비에 을씨년스러워하던 그날 원수님께서는 비물이 질벅한 길을 걸으시며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고기배며 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업소에 또다시 오시였던 12월의 그날에는 또 맵짠 바다바람이 몹시도 기승을 부리며 대지를 얼구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찬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사업소를 돌아보시면서 어구와 설비를 잘 갖추고 일을 잘하여 어획량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오랜 시간 야영생들을 기다리시며

지난 5월 어느날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 야영소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야영생들이 몇시에 야 야영소로 돌아오는가고 물으시였다.

오후 몇시에 등산을 마치고 돌아온다는것을 아신 그이께서는 여기까지 왔다가 야영생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기념사진도 찍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몹시 섭섭해할것이라고,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야영생들을 만나보고 가겠다고 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아이들이 나타날 때까지 오래동안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만나보시고 기념사진도 찍으신 후에야 그곳을 떠나시였다.

로동자들을 문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며

올해 6월 어느날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 꾸려놓은 로동자들을 위한 편의후생시설들도 돌아보시였다.

맑은 물 출렁이는 수영장과 목욕탕, 훌륭히 꾸려진 미용실과 리발실…

그 모든것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광에는 시종 기쁨의 미소가 어려있었다.

이윽고 음악감상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일군에게 로동자들이 음악을 감상하러 많이 오는가고 물으시였다.

많은 로동자들이 즐겨찾는다는것을 아신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의 문화수준이 높아진데 대해 말씀하시면서 평양기초식품공장은 로동자들의 희한한 궁전이라고 하시였다.

본사기자

령도자를 우러러 터치는 인민의 환호성 하늘땅을 진감한다.

《철령아래 사과바다》가 국제사회에 주는 의미

인도네시아신문에 실린 글

얼마전 인도네시아신문 《인터내셔널메디아》가 《철령아래 사과바다》라는 제목으로 공화국의 고산과수농장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철령은 조선사람들의 마음에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으로 깊이 새겨져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러한 철령아래 대규모의 고산과수농장이 건설되였다. 농장의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봄에는 사과꽃들이 만발하고 풍요한 가을에는 땅이 꺼지도록 사과들이 주렁진 드넓은 과수밭을 바라보느라면 누구나 탄성을 금치 못하게 된다.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금시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은 이곳은 말그대로 사회주의무릉도원이다.

2013년 6월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고산과수농장능력확장공사가 마무리되고 사과바다가 펼쳐지게 되면 《철령아래 사과바다》라는 새로운 선경이 생겨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올해 7월 또다시 농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눈뿌리 아득한 고산과수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철령아래에 사회주의선경, 인민의 리상향이 활짝 꽃펴났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철령아래 사과바다》, 이것이 국제사회에 주는 의미는 매우 심오하다.

다시말하여 《철령아래 사과바다》는 선군의 덕으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될 조선인민의 모습을 집약적이면서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면서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것이 바로 김정은령도자의 뜻이다.

그이의 숭고한 뜻은 그대로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철령아래 사과바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아무리 우심해도 자위적군력을 강화하면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얼마든지 마련해줄수 있다는것 즉 선군의 정당성을 세계와 력사앞에 뚜렷이 과시하고있다.

본사기자

철 령 아 래 펼 쳐 진 대 규 모 의 고 산 과 수 농 장

복받은 세쌍둥이들

육아원은 돌보아줄 부모나 친척이 없는 어린이들을 맡아키우는 양육기관이다.

그러나 평양육아원은 단순히 부모없는 아이들만이 사는 곳이 아니다.

이곳에는 부모있는 세쌍둥이들도 있다.

세쌍둥이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며 크나큰 사랑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에 따른것이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쌍둥이들이 태여날 때마다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금반지와 은장도를 보내주시고 나라에서 전적으로 맡아키우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때로는 다 자란 세쌍둥이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학습과 생활, 희망과 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며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세쌍둥이들에게 기울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과 은정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해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그 사랑속에 세쌍둥이들은 세상에 부럼없이 무럭무럭 자라나고있으며 가정의 복덩이이기 전에 나라의 복덩이로 떠받들리우고있다.

하기에 세쌍둥이들의 부모들은 국가적인 배려에 고마움을 금치 못하며 육아원을 친정집이라고 하고있다.

육아원에 있는 수정이, 령정이, 복남이 세쌍둥이의 어머니는 본래부터 몸이 허약했다고 한다.

때문에 세쌍둥이가 출생했을 때 한 아이는 정상아의 체중에 못미치는 상태였다.

세쌍둥이를 낳은 어머니도 그 애만은 살릴수 없다고 단정하였지만 평양산원에서 기적적으로 소생하여 엄마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되였다.

퇴원을 앞두고 세쌍둥이의 어머니는 더욱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남편이나 친정어머니보다 먼저 세쌍둥이들을 맡아볼 평양육아원 보육원들이 온것이였다.

애가 태여났을 때 녀인들이 제일 그리워하는것은 어머니의 손길이라고 한다.

이 나라 모든 녀인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부모의 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시는것이다.

바로 여기 평양육아원의 한쌍한쌍의 세쌍둥이들모두가 령도자의 이런 크나큰 관심과 배려속에 자라는 세상에 없는 복덩이들인것이다.

본사기자 리 경 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어제도 부르고 오늘도, 래일도 부르리라

공화국은 어떤 나라인가?

공화국인민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나라》,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세상》,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는 나라》, 《한사람의 아픔이 모두의 아픔이 되고 한가정의 기쁨이 온 나라의 기쁨으로 되는 사회》…

대동강반에 등실 떠오른 돛배마냥 황홀함을 뽐내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의 주인들이,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연풍과학자휴양소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있는 과학자들이,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에서 사회주의 문명을 향유하고있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이렇게 대답한다.

인민의 생활이 어떻게 날로 약동하고 문명해지는가, 이 땅에서 모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대번영기의 훌륭한 건축물들은 하나하나가 다 인민을 위한 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오늘도 즐겨부른다.

이국의 들가에 피여난 꽃도
내 나라 꽃보다 곱지 못했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공화국인민들의 심장의 고백과도 같은 노래구절이 아닐수 없다. 이 땅의 군대와 인민은 이 진리를 책에서 알지 않았다. 자기의 운명과 생활, 자기의 체험으로 확신했고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오늘날 이 진리는 그들의 가슴속에 더욱 뜨겁게 와닿고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며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모든것을 더 좋고 더 훌륭하게 마련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께서 지켜주고 빛내여주시는 사회주의제도에서 공화국인민들이 받아안는 혜택과 행복을 그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산좋고 물맑은 명승지마다에서 인민의 웃음소리 끝없이 울려퍼지고 해빛밝은 교실마다에서 아이들의 글읽는 소리 랑랑히 울린다. 누구나 치료받을 걱정없고 서로 돕고 이끌며 사회주의의 큰 지붕아래서 값높은 삶과 행복을 누리고있다.

최근에만 하여도 얼마나 가슴뜨겁고 격동적인 현실이 이 땅우에 련이어 펼쳐졌던가. 과학자들이 사는 화려한 거리, 현대적인 멋쟁이아동병원과 구강병원, 최고급호텔도 왔다 울고갈 교육자들의 호화로운 살림집, 세계일류급의 물놀이장, 각지에 꾸려진 공원과 유원지들, 볼수록 눈이 부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며 평양육아원, 애육원…

결코 건축물들이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하여서만이 아니다. 이렇듯 훌륭한 모든것들이 인민의것이라는 사실에, 남녀로소, 각계각층이라는 말그대로 그 어떤 차별도 없이 근로하는 인민의것이라는 사실에 누구나 눈시울을 적신다.

꿈이라면 이런 꿈, 현실이라면 이런 현실이 제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하기에 공화국을 방문한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 누구나 자기들의 심정을 이렇게 터치고있다.

《이번에 조선의 모습, 조선의 진실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 나라는 어둠이 없는 나라이다. 수도와 지방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밝은 웃음, 생기와 활력에 넘친 모습뿐이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는 악의와 증오, 빈궁과 죽음이라는 말자체가 영원히 떠나가버린듯싶었다.》

《이런 집에서 산다는것은 내가 사는 나라에서는 평생을 돈모아도 이룰수 없는 꿈이다.》

《가식과 허영, 불행과 비관을 모르는 조선아이들의 자신만만하고 밝고 정직한 모습에서 조선의 참모습을 볼수 있었다.》…

세계를 휩쓰는 99%와 1%의 빈부대립이 없는 사회,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를 생활의 갈피갈피에 구현하여 서로 돕고 이끄는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뭉쳐진 아름다운 사회,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된 나라, 이런 공화국의 현실을 세계 그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는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뜻하는 참다운 인권세상은 바로 이런 공화국이다.

언제인가 남조선잡지에 실린 한편의 기사가 떠오른다.

《하늘에 살아요, 새는 아니랍니다.》

생존의 권리, 로동의 권리를 위해 아아한 철탑우에서 항거의 날과 달을 보내는 남조선의 비정규직로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삶의 뿌리를 내릴수 없는 땅을 저주하며 하늘에서 눈물의 절규를 분출하고있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에 《하늘주민》, 《송전탑밑에 깔린 존엄과 행복》이라는 불행한 말도 생겨났다.

이를 두고 남조선의 한 인권운동가는 《…참담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 비애감이 드는 요즘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로동을 하면서도 갈수록 가난해지고 비루해지는 삶에 지쳐서, 무권리의 로동현장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견뎌내는데 점점 익숙해지는 사람들, 그러다 그나마 일자리를 잃으면 엄습해오는 절망감끝에 벼랑에서 몸을 던지는 사람들… 자살률 세계1위의 나라에서 인권을 얘기하는게 사치일수도 있겠다.》고 개탄하였다.

이와 반면에 공화국은 오늘도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된 사회주의강성국가의 휘황한 설계도를 끌없이 펼치며 미래의 더욱 행복해질 락원으로 인민을 이끌어가고있다. 지금 이 시각도 완공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곁에서는 또 새 아빠트들이 경쟁적으로 일떠서고있다. 날에 날마다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 문명의 희한한 현실들이 펼쳐지고있다.

그러니 어찌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노래소리가 이 땅우에 울려퍼지지 않을수 있으랴.

해와 별 비치여 밝고 정든 곳
내 다시 안길 땐 절을 하였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

공화국인민들은 자기의 제도, 자기의 생활, 자기의 미래를 자부하고 확신하며 끝없이 사랑한다.

인민이 주인된 세상, 국호에도 인민이라는 고귀한 이름이 새겨져있고 모든 정책이 인민을 위하여, 인민을 중심으로, 인민을 우선으로 실시되고있는 인민의 락원에서 공화국인민들은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 더욱 부강하고 번영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워가고있다.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천만복을 누리는 공화국 인민들의 행복을 담아싣고 세월이 무궁토록 끝없이 울려퍼지리라.

본사기자 김 춘 경

행복한 우리 세상 지키기 위해

나는 두 자식을 대학에 보낸 어머니이다. 세월이 흘러 내 나이 쉰고개를 넘겼지만 언제한번 대학에 다니는 자식들걱정을 해본적이 없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나라에서는 평범한 로동자가정에서 태여난 우리 자식들을 그들의 희망에 따라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보내주었고 돈 한푼 받기는커녕 장학금까지 주면서 공부시켜주고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대학생들이 공부시간외에 고된 부업을 해야 하고 학비마련이 힘들고 전망이 암담하여 자살까지 하고있다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국가가 모든 부담을 안고 배움의 나래를 마음껏 펴도록 하고있으니 아이들은 아무 걱정과 불편도 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있다. 결국 나는 두 자식을 낳았을뿐이지 그들을 대학에 이르기까지 키워주고 돌봐주고있는것은 고마운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이다.

지금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 대해 갖은 비방중상을 쏟아내며 《인권》모략소동에 발광하고있다.

이런 고마운 제도에 대고 《인권》이니 뭐니 하는것을 보면 분명 속이 구린 놈들이다. 최악의 인권생지옥으로 전변된 썩어빠진 제도를 우리 공화국에까지 연장해보려는것 같은데 이런것을 두고 달밤에 개꿈을 꾼다고 한다. 누가 인민의 존엄과 권리가 참혹하게 짓밟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겠는가.

남조선의 대결광신자들이 발광하면 할수록 행복한 우리 세상, 인민의 세상을 이몸이 열조각나는 한이 있더라도 받들고 목숨바쳐 지켜야 한다고 나는 매일같이 마음다짐하군 한다.

평양시 순안구역 대양리
27인민반 리 순 희

고마운 제도, 고마운 손길들

얼마전에 뜻밖의 사고로 근 3달가까이 병원신세를 지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의사선생님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의식을 회복하고 마침내 대지를 다시 활보하게 되였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은 우리 제도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였다.

전신타박상에 다리골절, 일부 내장장기의 손상… 그나날 나의 몸으로 얼마나 많은 피와 각종 고가약들이 흘러들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낸 돈은 한푼도 없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무상치료제와 환자치료에 온갖 정성을 바치는 의사선생들과 간호원들을 비롯한 고마운 사람들의 손길이 불구로 될번한 나를 이 세상에 두번 다시 태여나게 해주었던것이다.

정말이지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가장 우월한 인민보건시책이 실시되고있는 우리 나라가 제일이다.

우리 인민이 왜 이 제도를 목숨바쳐 사랑하고 지켜가고있는지를 반공화국대결광신자들은 이 땅에 와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할것이다.

함경남도 함흥시려객운수
사업소 로동자 차 문 혁

너와 나

오늘 공화국에서는 자신보다 먼저 사회와 집단, 동지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는것이 어디서나 볼수 있는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화상을 입고 입원한 생면부지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피부를 서슴없이 바치고 뜻밖의 재난을 당한 가정을 찾아 식료품과 생활용품들을 아낌없이 안겨주는 사람들, 나이많은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친자식, 친부모가 되여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면서도 그것을 너무나도 응당한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공화국인민들이다.

처녀의 몸으로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되여주고 수년간 걷지 못하는 어린이를 등에 업고 학교를 다닌 녀교원에 대한 이야기, 굴이 무너지는 순간 자기 한몸을 바쳐 동지들을 구원한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도 다 공화국의 평범한 인간들이다.

43명의 부모잃은 아이들을 데려다 키워 조국앞에 떳떳하게 내세운 강원도 이천군 신당축산전문협동농장 박연화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감동적인가.

예로부터 한 자식을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했다. 친자식도 어머니의 속을 태우기마련인데 하물며 한피줄도 아닌 수십명의 자식들을 한식솔로 만드느라 그가 흘린 땀과 눈물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언제한번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얼마전 《로동신문》에는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 사경에 처한 한 녀성과 어린이를 구원한 황해남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부원에 대한 이야기가 실리였다. 그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감동을 금치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런 소행은 사람들사이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행으로 간주되고있는 공화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있다.

옳은 말이다.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공화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거나 적대시할 아무러한 리유나 원인도 없다. 서로 돕고 이끄는 아름다운 인간관계, 사상도 뜻도 함께 하는 동지적관계가 존재할뿐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공화국에서는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것이 너무나도 응당한 일로 되고있는것이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이 《사람들모두가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에서만 펼칠수 있는 인간사랑의 서사시》, 《누구나 한가정, 한식솔이 되여 화목하게 살아가는 나라, 사랑의 향기넘치는 사회》라고 하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가 돈에 의해 규정되고 모든것이 돈에 의해 좌우지되는 남조선사회에서 서로 돕고 이끈다는 말자체를 상상할수 없다.

사회가 동서로 갈라지고 부자와 서민으로 갈라지고 여야로 갈라져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이 그칠새없는 남조선은 말그대로 적의와 증오만이 꽉 차있는 사회이다.

대학생들이 대학등록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휴학과 과외로동을 하거나 의학생체실험에 내몰리던 끝에 자살의 길을 택하고 한 녀성작가가 먹다남은 밥이 있으면 좀 달라는 글을 써놓고 굶어죽어도 누구 하나 관심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바로 남조선이다.

부모를 부양하기 싫다고 목졸라죽이고 안해가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남편을 죽이는것과 같은 패륜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지난해 남조선에서 발생한 범죄건수가 200만여건으로서 지난해에 비해 3.2%나 늘어났다고 한다. 그중 성폭력범죄는 2만 6 000여건으로 하루평균 74건, 아동성폭력은 1 050여건에 달한다고 하니 어떻게 사람들이 마음편히 살수 있겠는가.

사랑과 정이 넘치는 사회와 불신과 증오만이 존재하는 사회.

과연 어느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이고 사람 못살 사회인가 하는것은 묻지 않아도 알수 있다.

본사기자 박 철 남

수기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은 우리 세상

생활이란 사람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물질적부와 휴식, 안정된 로동조건을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에서 생기는 인간의 삶이다.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공화국에서는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가 백방으로 보장되여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40년동안 남조선에서 살다가 공화국의 품에 안긴 나는 그때부터 자본주의생활과 결별하고 인민이 주인이 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참된 삶을 누려오고있다.

지금도 1989년 11월 공화국의 품에 처음 안기던 때를 잊을수 없다. 그때 베를린에서 공화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리륙하는 순간 나는 의거입북이 성공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던 이남당국자들의 반공화국선전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물론 그것을 그대로 믿지는 않았지만 이북에 몸담고 살기 위해 가는 그 순간 혹시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이북의 생활과 관련한 륜곽적인 말이라도 듣고싶어 비행기의 앞좌석에 앉아있는 이북사람에게 공화국에서 집값이 얼마나 되는가고 물으니 국가에서 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준다는것이였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내가 월북해온다고 하니 좋게만 말하는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화국에 첫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 많던 의문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인간이 누릴수 있는 참다운 생활이 바로 이곳에서 꽃펴나고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처음에 공화국에 입북하여 만경대구역에 세칸짜리 아빠트를 받았는데 얼마 안되여 또다시 그보다 더 넓고 고급한 모란봉구역 개선동의 세칸짜리 집으로 이사오게 되였다. 널직한 방들과 부엌, 세면장, 창고, 4개의 베란다가 있는 120㎡의 살림집으로 이사오는 날 안해는 눈물이 글썽하여 나에게 이만한 집이면 남조선에서 값이 얼마나 나가는가고 물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 50만US$라는 답이 나왔다. 그날밤 나는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고급으로 미장한 하얀 천정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남조선에서는 돈없는 사람들이 이런 집을 사거나 짓고 산다는것은 꿈도 꿀수 없는것이다.

나는 지난 기간 만수대거리, 창전거리 살림집들을 돌아보면서 감탄하였지만 새로 일떠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살림집들에 가보고는 더욱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고급호텔 못지 않은 궁궐같은 집들에서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이 살고있는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겨레가 오랜 세월 바라던 부귀영화로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어찌 살림집뿐이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문수물놀이장, 인민야외빙상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 릉라곱등어관과 같은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서 어딜가나 기쁨과 행복에 넘친 인민들의 웃음소리 그칠줄 모르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돈있고 권세있는자들은 잘살지만 돈없고 권세없는 사람들은 한숨과 눈물속에 살아가고있는 남조선과 하늘땅같은 차이가 아닐수 없다.

그러니 어느 사회가 진정 인민을 위한 사회인가. 어느 세상이 진짜로 좋은 인권존중의 락원인가.

내가 안겨사는 고마운 이 세상, 자주로 존엄높고 인민사랑으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싶다.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원 정 규 진

참다운 정치적권리를 행사하고있는 공화국인민들

인민의 기쁨과 랑만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문수물놀이장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서—

영예군인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고있다.

—연풍과학자휴양소에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류경구강병원에서—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매달리는 대결광들은 민족의 심판을 면할수 없다

상상도 못할 엄청난 화를 불러올것이다

얼마전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은 유엔총회 제69차회의 3위원회에서 존엄높은 공화국의 체제와 제도를 헐뜯으며 그 무슨 《인권결의》라는것을 조작하는 극히 도발적인 반공화국놀음을 벌려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당국은 《환영》이니, 《국제사회의 우려의 반영》이니, 《적극적인 협력》이니 하며 열뜬 환자처럼 온갖 잡소리만 늘어놓고있다.

한편 《새누리당》도 여기에 편승하여 《국회》에서 《북인권법》의 강행처리이니,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니 하는 모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날과 달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남조선보수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저주를 자아내고있다.

따지고보면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은 비단 오늘에 와서 시작된것이 아니다. 지난 시기에도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외세와의 《공조》 밑에 국제무대에서 그 누구의 《인권》 문제를 운운하는 《공동제안국》으로 주제넘게 머리를 들이밀군 하였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칠새 없는 북침전쟁소동과 삐라살포행위로 북남관계를 이전의 대결시대에로 돌려놓은것도 성차지 않아 반공화국 《인권》 공조를 구걸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인간쓰레기들의 흑백이 전도된 비렬한 악담질을 《자료》니 뭐니 하면서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불구어가지고 《인권결의》 조작에 앞장서 날뛴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그런가하면 《인권》의 탈을 쓴 국제사회의 반북적대세력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각종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을 벌리다 못해 인간오물들을 국제무대들에까지 끌고다니면서 《증언》이니 뭐니 하는 나발을 불어대게 하여 민족적수치만을 자아낸것도 역시 남조선당국이다. 이러한 남조선당국이 이번에 또다시 국제무대에서 《공동제안국》이니 뭐니 하며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의 돌격대가 되여 《인권결의》 조작에 앞장서 날뛴것을 보면 그들의 반공화국대결광기가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에 추종하여 《인권결의》 조작에 앞장선것은 날로 높아가는 공화국의 권위와 영향력을 어떻게 해서나 깎아내리고 저들의 범죄적인 동족압살야망을 이루어보자는데 그 비렬한 목적이 있다. 한편 내부에서 여론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 민심을 수습하고 남조선인민들의 반 《정부》 투쟁기운을 무마하여 통치위기를 극복해보려는데도 있다.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내맡기고 군통수권마저 외세에게 섬겨바친 세상에 둘도 없는 특등사대매국노, 남조선을 최악의 인권동토대로 만든 인권유린왕초들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하여 떠들어대는것은 그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주절대기에 앞서 눈이나 바로 뜨고 하늘과 땅처럼 차이나는 북과 남의 인권실태부터 바로 보아야 한다.

온갖 반인민적악정으로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짓밟는 현 당국을 저주하고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의 각종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시위와 집회의 마당에서 울려나오는 울분에 찬 목소리들은 《불통》으로 귀를 막고 못들은체 하는 남조선당국이 날로 번영해가는 사회주의부귀영화속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세상에 부럼없어라》,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노래를 저도 모르게 흥이 나서 부르는 공화국에 대하여 시비중상하는것이야말로 삶은 소 웃다가 꾸레미 터질 노릇이다.

정치도 인민을 위한 정치, 제도도 인민을 위한 제도로서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실현되여가는 사회주의무릉도원,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만사람의 부러움과 찬탄을 받고있는것이 오늘 공화국의 현실이다.

《사회주의 만세!》 함성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공화국에서 《인권문제》란 애당초 있을래야 있을수 없다.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은 갈수록 잦아지는 북침전쟁연습소동과 더불어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도발로서 천하에 용납 못할 국악무도한 반민족, 반통일적죄악이다.

재미난 곳에 범이 나온다고 했다.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외세와의 《공조》 밑에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인권문제》를 들고다니며 《제재》와 《고립》 따위로 일심단결의 북을 어째보려는 《재미》를 보려 하지만 그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화만 스스로 불러오는 미련한짓이다.

본사기자 김 응 철

《신뢰》를 더이상 운운하지 말라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입만 벌리면 주절대온것이 《신뢰》타령이다. 그들은 저들의 《대북정책》을 《신뢰프로세스》로 요란스레 광고하였다.

신뢰, 말은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입으로는 《신뢰》를 말하고 행동으로는 신뢰가 아니라 불신과 대결을 쉴새없이 고취하는것이 남조선의 집권세력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소란스러울 정도로 벌어지고있는 반공화국 《인권》 소동은 동족대결의 최고절정판을 이루고있다. 남조선당국자가 직접 나서서 《북주민의 기아》니, 《비극적인 인권상황》이니 뭐니 하며 입에 담지 못할 독설들을 내뱉는가 하면 그 아래것들은 《유엔총회결의》니, 《북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촉구한다.》느니 뭐니 하는 나발통을 불어대고있다. 여당의 독무대로 된 《국회》에서는 《북인권법》을 년내에 만들어야 한다며 복닥소동이 일고있다.

남녘의 온 정계가 《북인권》 소동으로 란리이다. 북의 《인권》 문제가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과 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라도 된단 말인가. 아니면 저들이 그 무슨 《인권수호신》이 되기라도 한것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것은 공화국의 내정에 대한 엄중한 간섭이고 도발중의 도발이다. 공화국은 자기 식의 삶이 있고 발전의 길이 있으며 자기 식의 인권이 있다. 그것은 공화국의 인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삶이고 존엄이며 긍지이다. 그것이 저들의 눈에 거슬려 남조선인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것을 밥먹듯 하는 보수당국이 그 무슨 《인권》이니, 《북인권법》이니 하고 입에 게거품물고 날뛰니 어디 온전한 정신을 가진자들이라고 하랴.

북남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기초로 한다. 그것이 없으면 도대체 신뢰도 있을수 없고 북남관계발전이 있을수 없다. 그런데 반공화국 《인권》 공세는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 인민들의 존엄높은 삶을 통채로 부정하고 뒤집으려는 최고의 적대행위이고 가장 로골적이며 범죄적인 동족대결행위이다. 자기를 해치려고 사나운 이발을 드러내고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날치며 달려드는 그런자들과 과연 말과 진정이 통하고 신뢰가 싹틀수 있겠는가. 그것은 신뢰는커녕 불신을 최대로 증폭시키고 충돌과 전쟁만을 몰아올 매우 위험천만하고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여기에 어디 상대방을 존중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털끝만 한 기미라도 찾아볼수 있는가. 지금 남조선당국의 눈에 비낀것은 동족애와 선의가 아니라 적대와 악의의 독기뿐이다. 그 무슨 《인권》 소동으로 북과 전면대결을 선언한 남조선당국의 《신뢰》의 가면은 여지없이 벗겨졌다.

극도의 대결광란으로 년초부터 북침전쟁연습의 화약내를 짙게 풍긴 남조선의 보수당국은 한해가 다가는 지금이 시각에도 발악적인 반공화국 《인권》 소동으로 북남사이에 화해와 신뢰의 불씨가 아니라 반목과 대결의 불씨를 계속 돋구고있다.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 인민들의 생활을 최대로 중상모독하고 반공화국압살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남조선집권당국은 더이상 《신뢰》에 대해 말하지 말라. 이것이 분노와 멸적의 감정이 응어리지고 폭발직전에 있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이 대결세력에게 보내는 저주의 목소리, 경고의 목소리이다.

정 학 준

인권이 무엇인지 여기에 와 배우라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미국의 《인권》 장단에 춤을 추면서 동족을 반대하여 별의별 못된짓을 다한다는데 대결에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

우리 공화국은 인권이 최대로 보장되는 사회이다. 아이들을 국가에서 돌봐주는 하나의 정책만 놓고보아도 우리 나라처럼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아이들을 위해 천만금도 아낌없이 다 돌려주는 그런 고마운 사회, 고마운 제도가 또 어디에 있는가.

지금 새로 일떠선 여기 평양육아원, 애육원에서는 궁궐같은 요람에서 아이들이 터뜨리는 기쁨의 웃음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하루종일 대동강반에 메아리쳐 울려가고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해외동포, 외국인들도 여기에 와보고는 누구나 부러움을 금치 못하면서 자기도 고아가 되여 이런 훌륭한 집에서 행복을 꽃피우며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너도나도 이야기하고있다.

세상에 제일 외롭고 설움많은것이 고아들이라 하지만 우리 공화국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과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있다. 낳아준 친어머니들보다 더 살뜰하게 어루만져주고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온갖 육친적사랑과 배려만을 돌려주는 어린이들의 왕국, 인간사랑의 천국을 누가 감히 어째보겠다고 《인권》이니 뭐니 하는가 하는것이다.

수백명의 아이들을 한날한시에 차디찬 바다물에 수장시켜놓고도 눈물 한방울 없는 랭혈한들이 누구를 감시하고 누구를 재판에 회부한다는것인가.

《인권》을 목아프게 떠들기 전에 참다운 인권이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와서 보고 배우라.

평양육아원 원장 김 정 희

선군이 있어 인권도

남조선집권자가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며 단절과 고립의 길을 고집하면서 북주민들이 기아와 비극적인 인권상황에 직면해있다.》고 허튼 나발을 불어댔다는데 도대체 공화국의 핵이 무엇이고 인권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고 이따위 소리를 줴치는가.

우리의 핵억제력은 미국의 침략위협을 막아 이 땅에서 전쟁의 불구름이 타오르지 않게 하기 위한 민족수호, 평화수호의 보검이다.

선군이 아니였으면, 그에 의해 마련된 자위적핵억제력이 없다면 미국에 의해 이 땅은 이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처럼 처참하게 짓이겨지고 민족이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면할수 없었을것이다.

수천만인민의 존엄과 생명을 지켜주고 전쟁을 막아 남녘인민들의 안녕도 지켜주는 우리의 핵은 전체 조선민족의 인권수호의 최강의 무기이다.

이런 엄연한 현실과 리치를 똑바로 알고 전쟁을 막아주고 인권을 지켜주는 북에 감사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평양시인민위원회 과장 리 철 수

또 《간첩》 사건?
참혹한 인권유린은 오늘도

남조선에서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이 극도로 벌어지고있는 속에 얼마전 서울에서 또 하나의 《간첩》 사건이 터졌다. 사건의 내용인즉은 남조선군부출신의 30대 남성이 《북의 공작원》에게 흡수되여 비밀정보 등을 넘겨주었다는것이다. 남조선수사당국은 그럴듯 한 사실자료까지 안받침하며 이 사건을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지나가는 바람소리나 들은듯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랭담하기만 하다. 남조선에서 그 무슨 《간첩》 사건들이라는것이 장작불에 콩튀듯 너무도 다반사로 터져나오는 일인데다 북과 련관된 그 모든 사건들이 후에 알고보면 다 극도의 통치위기에 몰린 보수당국이 여론의 이목을 다른데로 돌려보려고 조작한 사건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박춘환간첩사건, 서창덕간첩사건 등이 그 실례이다.

통치위기가 조성되면 자연히 《간첩》으로 명명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북과 련결시켜 민주세력탄압의 구실로 리용하군 하는것이 남조선보수세력의 고질적인 통치수법이다. 하여 정치적반대세력이나 통일운동단체는 물론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터무니없이 씌워지는것이 《간첩》 모자이다. 리명박 《정권》에 이어 현 《정권》에 이르는 기간에만 보아도 그 무슨 《일진회》니, 《왕재산》이니 하는 《간첩단》 사건들과 서울시 공무원사건, 내란음모사건들이 줄줄이 터지고 이른바 《간첩》 혐의를 받은 사람이 40명에서 80명, 80명에서 130명 이렇게 해마다 배로 증가되고있는 형편이다.

독초의 뿌리에서는 독초밖에 나올것이 없다고 과거 군부독재 《정권》을 꼭 빼닮은 현 남조선 《정권》 역시 하는짓이란 모략과 권모술수로 무고한 사람들을 탄압하는 일뿐이다. 《간첩》이니, 《용공》이니 하는 터무니없는 《죄명》을 들씌우면서 사회대중당사건, 《민족일보》 사건,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을 날조하여 남조선과 해외의 애국인사들을 야수적으로 처형학살한 독재 《정권》이나 자기의 정치적반대파라고 해서 《내란음모죄》를 들씌워 한개 야당을 통채로 해산해치우려하고 번번이 실패한 그 무슨 《립법 로비》 문제를 들고나와 한달동안에만도 야당의원 10여명에게 정치적탄압을 가하며 정체불명의 《간첩》 사건들을 속속 연출해내는 현 《정권》이나 과연 무엇이 다른가.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하여 귀청떨어지게 고아대지만 사실상 인권불모지대로 말하면 지금 이 시각도 수많은 사람들이 독재 《정권》에 의해 말할 권리, 일할 권리, 살아갈 권리를 빼앗기고 정치적희생물이 되여 《간첩》으로 매도당하는 남조선이라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을 최악의 인권폐허지대로 만든 인권유린왕초들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드는것자체가 파렴치한 궤변이다.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조작된 수많은 《간첩》 사건들은 남조선독재 《정권》들이야말로 집권 《안보》를 위해서는 그가 누구든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정치적희생물로 삼아 서슴없이 짓밟아버리는 최악의 인권침해세력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북이 마치도 대결을 바라는것처럼 민심을 오도하면서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있지만 남조선당국은 인권을 짓밟아 대결을 추동하는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본사기자 김 련 옥

되풀이될수밖에 없는 운명

지금 남조선에서는 이마빡에 보수딱지를 붙인 동족대결미치광이들이 모두 떨쳐나서서 북의 《인권》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로 요란스레 떠들어대며 법석 소란을 피워대고있다.

그 리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극도에 이른 저들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한것이다.

지금 남조선보수당국은 날로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위력앞에 전전긍긍하고있다.

누구나 평등하며 서로 돕고 이끄는 따뜻하고 화목한 사회인 공화국은 개인주의만이 살판치는 자본주의남조선이 흉내낼수도 따라올수도 없는 엄청난 힘으로 자기의 리상을 매일, 매 순간 실현해가고있다.

평양에 새로 꾸려진 세상에 둘도 없을 육아원, 애육원과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등은 공화국인민들이 누려갈 사회주의부귀영화와 인간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공화국의 현 인권실태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례들이다.

남조선당국이 《인권》 소동에 매여달리는것은 또한 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하여 저들의 범죄적인 《흡수통일》 야망을 실현해보자는것이다.

오래전부터 남조선보수패당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꿈꾸어오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이번에 《국회》에서 어떻게 하나 통과시켜보려는 《북인권법》의 내용도 법무부산하에 《북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인권침해사례》를 조사,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 장관이 《북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것을 핵심으로 하고있다.

공화국의 이러한 현실은 인권불모지에서 사는 남조선인민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있으며 남조선을 인간생지옥으로 만든 보수당국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게 하고있다.

여기에 전률한 남조선보수당국은 저들에게 쏠리는 민심의 화살을 피하고 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해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그토록 광분하고있는것이다.

그들은 《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산하에 둠으로써 후날에 그 누구의 이른바 《인권유린》에 대해 처벌근거가 되게 하겠다고 내놓고 떠들어대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남조선보수당국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이 범죄적인 《흡수통일》 야망의 산물이며 그러한 책동이 무모한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이 이미 경고했듯이 남조선보수당국이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에 계속 매여달리는 한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파국에서 벗어날수 없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지난 2년동안에 북남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3년도 어떻게 흘러갈지 훤하게 보인다. 리명박이 집권 5년간 동족대결에만 일관하여 북남관계파국의 5년을 만들었다면 현 남조선 《정권》 역시 지금의 대결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그 5년이 다르게 흘러가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남조선당국이 지금대로 나간다면 집권전기간 변변한 북남대화 한번 못해본채 임기를 마치고 온 겨레의 규탄과 증오를 받는 리명박의 처지와 무엇이 달라지랴.

남조선보수당국은 그 무슨 대화에 대해 떠들기 전에 이제라도 어리석은 《흡수통일》 망상에서 깨여나 무모한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최 명 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보복의지를 안고 시위에 나선 평양시군민대회 참가자들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한 생동한 고발

최근 남조선에서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당국의 탄압책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있다.

1년 넘게 진행되고있는 통합진보당해산소동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해산심판 최후변론》에 나선 법무부 장관 황교안은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존재》라느니, 《민중중심의 자립경제체제, 련방제통일방안도 북의 인식과 일치한다.》느니 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목에 피대줄을 돋구었다.

뿐만아니라 남조선경찰은 전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출신의 녀성이 진행한 인터네트 방송과 음악회에서 한 발언이 《보안법》위반이라고 걸고들면서 소환조사놀음을 벌려놓았다.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이러한 탄압책동은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평화와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보수패당의 파쇼폭압망동이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통합진보당으로 말하면 지난 기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적약자들의 리익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을 벌려온 진보적인 대중정당이다. 미국에 정치, 경제적주권을 송두리채 섬겨바치는 당국의 사대매국행위와 통산참사, 《세월》호참사와 같은 재난을 빚어낸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여 로동자, 농민, 령세상인, 빈민들의 편에 서서 사회적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이 당의 활동은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의 지지를 받아왔으며 그 결과 《국회》에서도 무시 못할 정당으로 인정되고있다.

이런 진보정당을 《종북》이라는 억지감투를 씌워 기어코 강제해산하려는것은 곧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서민의 리익을 무참히 짓밟고 광범한 대중이 자기들의 리익을 대변할 정당도 가지지 못하게 하려는 파쇼탄압행위이며 인권유린의 극치이다.

인권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돈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권리이며 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마구 침해하는것은 그 어떤것으로도 용납될수 없는 죄악중의 죄악이다. 남조선사회의 재부를 창조하면서도 실업자, 방랑자로 내몰리우며 참혹한 불행과 고통속에 몸부림치는 것이 로동자, 농민, 서민들 일진대 그들의 리익을 대변해온 정당의 존재까지 송두리채 없애버리겠다는 망동은 1%의 가진자, 특권층이 99%의 인민대중을 억누르고 짓밟는 썩은 남조선사회의 진면모를 뚜렷이 보여주는 동시에 남조선이야말로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송두리채 말살하는 인권의 폐허지대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남조선의 파쇼당국이 통합진보당을 끌끌내 없애버리려 하는데는 민족의 화해와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해온 이 당의 활동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탄압말살하여 고조되는 련북통일기운을 막고 동족대결을 더욱 고취하기 위한데도 비렬한 목적이 있다.

민족의 화해와 이 땅의 평화를 주장하는 정의의 목소리를 《종북》으로 매도하고 압살의 칼을 휘두르는것이야말로 전쟁으로 민족공멸을 부르는 대결광신자, 전쟁광신자들의 추태가 아닐수 없다.

력사는 공정한 심판관이며 이러한 치떨리는 반인권적, 반민주적폭압행위는 수치스러운 인권기록으로 두고두고 온 겨레와 세상사람들의 저주를 받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민

개꿈에서 깨여나라

지난 19일 부산에서는 《한반도평화포럼》과 《자치21》 등의 사회단체들의 공동주최로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토크쇼》가 열리였다. 여기에는 6.15공동선언발표이후시기의 통일부장관들과 대학교수 등 여러 명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이 모임에서 전직 통일부장관들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목소리로 규탄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방법론이 없다.》, 《말만 화려하게 하면서 진정성이나 선행동 등의 조건을 내걸면 아무것도 안된다.》, 《〈5.24조치〉가 해결 안되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령역이 대단히 제한된다. 인도주의사업도, 경제협력도 끊어졌는데 군사적긴장완화를 기대할수 있겠는가.》, 이것이 행사장에서 울려나온 참가자들의 발언들이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지금 남조선의 지성있고 량심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있는 당국의 《대북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과 통일로 향한 6.15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문제로 되는것은 남조선보수당국이 민심의 이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재앙만을 초래할 체제대결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오히려 남조선당국은 《통일준비》라는 미명하에 온갖 요설을 내돌리며 어지럽게 놀아대고있다.

최근 남조선당국자가 주도하여 만들어낸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을 놓고보자.

지난 7월에 발족한 이래 이 《위원회》는 2차례의 회의와 여러차례의 산하분과위원회들의 공개토론회들을 진행했다. 여기서는 《통일헌장》의 제정이니, 《북이 〈비핵, 경제발전〉이라는 〈병진2.0로선〉을 대안으로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느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랑설들만 울려나왔다. 명색이 《통일준비위원회》라면 어떻게 하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체제통일》을 념두에 둔 《통일헌장》을 제정하겠다는것이나 북의 로선과 정책을 헐뜯는데 《통일준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로 볼수 있겠는가. 이뿐이 아니다. 지난 10월부터만 보더라도 《정부》기관과 각종 학술단체들의 주최하에 진행된 학술토론, 공개연단 등에서는 《북에 금융기초시설 구축》, 《점진적 남북경제통합》, 《북에 환경기반시설 구축하여 향후 통일비용 절감》과 같은 주제넘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있는 실정이다.

특히 남조선보수패당은 있지도 않는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결고들면서 《국회》에서 《북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는 한편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북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은 평화통일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것》이라고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또한 보수당국은 미국의 《북인권》 특사를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을 끌어들여 《샤이오인권포럼》이라는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벌리는가 하면 미국에까지 건너가서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하는 학술회의까지 벌려놓았다. 날조와 거짓으로 상대방을 자극하고 《인권》을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의 기본《수단》으로 만들어보려는 남조선당국의 책동은 지금 온 겨레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현 남조선당국은 집권후 자기의 《대북정책》에 《신뢰》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말끝마다 《평화통일》을 운운하고있다. 하지만 우의 사실들은 그들이 떠드는 《신뢰》란 미사려구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 흉심만이 꽉 들어차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북과 남은 이미 오래전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합의했으며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미 마련된 통일의 원칙과 방도들은 외면하고 저들주도하의 《통일》이 마치 다 된것처럼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격으로 온갖 어지러운 랑설을 퍼뜨리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망동은 지금 만사람들의 조소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결성이요 뭐요 하면서 더욱 요란스럽게 울려나오는 《통일》타령들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체제통일》, 동족대결야망이 위험수위를 벗어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 천년만년이 가도 실현될수 없는 개꿈이라는것을 똑바로 명심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재난만을 들씌울 그러한 《통일》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그를 추구하는 민족반역자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안길것이다.

조국통일의 출로는 오직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통일의 리정표인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의 철저한 리행에 있다. 이것이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는 력사의 진리라는것을 남조선보수패당은 똑똑히 명심하여야 한다.

김 경 선

인권유린왕국의 오명부터 벗으라

이 해가 저물어가고있는 속에 세계 여러 나라 방송, 신문, 잡지 등 언론기관들이 해마다 진행하는 《세계10대사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 등을 선정하여 발표하고있다.

얼마전 미국에서 남성들을 기본으로 하여 발표하는 잡지 《GQ》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없는 명사》 30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현 미당국자가 1위에 오른 아일랜드 출신 록밴드(쟈즈악단) 《U2》와 보컬(성악단체) 《보너》에 이어 2위로 선정됐다. 록밴드 《U2》와 보컬 《보너》가 예술인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보면 현 미당국자는 정치인으로 《가장 영향력없는 명사》 1위인 셈이다. 《GQ》는 미당국자를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없는 정치인》으로 내세우면서 그 근거로 여러가지 실례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미국가안보국(NSA)이 세계 여러 나라들은 물론 지어 저들의 동맹국들과 자국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전대미문의 도청문제, 미국의 미주리주에서 감행된 인종차별로 전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시위투쟁 등과 같은 인권유린행위들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다.

미국이 세계에서 마치도 저들이 《인권재판관》이나 되는듯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그 무슨 《인권》에 대하여 자주 거들고있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최근 미국이 반공화국압살소동의 하나로 있지도 않는 《북인권》에 대하여 때와 장소를 가림이 없이 요란스레 떠들고있는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이러한 미국이 제 나라 땅에서 벌어지는 반인권유린범죄에 대해서는 눈감고 못 본 체하며 입다물고있다. 지금이 시각에도 미국에서는 당국의 인종주의정책에 항의하는 시위투쟁이 100여일째 벌어지고있다. 《총으로 쏘지 말라》는 구호밑에 퍼구슨시에서 벌어지던 항의시위투쟁은 얼마전 미사법당국이 백인경찰의 반인권범죄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자 전지역으로 전파되고있다. 《인종차별을 중지하라》,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는 구호와 함께 미국의 170여개 도시에서 각계각층이 참가하여 벌어지는 반인종주의시위는 앞으로 더욱 치렬할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의 많은 외신들은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를 내흔들며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던 미국이 이제는 할 말을 잃게 되였다고 야유조소하고있다.

피부색갈이 검다고 하여 총에 맞아 죽어도 말 못하는 인종주의가 극심한 사회, 당국이 나서 사람들의 사생활도 거리낌없이 감시하는것과 같은 극심한 인권유린행위들이 란무하는 사회가 바로 미국이다. 세계인권유린왕국으로 악명을 날리는 미국이 그 무슨 《북인권》문제를 떠들며 공화국을 어째보겠다고 흰소리를 치지만 세계는 거기에 쓴웃음만 짓고있다. 오죽했으면 미국잡지가 정치인으로서 현 미당국자를 《가장 영향력없는 명사》로 소개하고있겠는가.

앞으로 세계가 인권의 폐허지대, 동토대인 미국에 어떤 오명을 안겨주겠는지는 두고보아야 하겠지만 미국이 더이상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남의 집일에 이러쿵저러쿵 삐치지 말고 제 집일이나 바로잡는것이 마땅하다.

본사기자 김 응 철

미국에서 당국의 인종주의정책에 항의하여 시위

갈수록 심해지는 불평등

얼마전 남조선집권자는 어느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취임후 가장 어려운 순간》을 묻는 질문에 《과거로부터 쌓여온 폐단, 부정부패 이런 흔적들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힐 때》라고 하면서 임기중에 《바로 잡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 폐단과 부정부패를 바로 척결할 의지가 없고 행동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현실은 그 말이 남 듣기 좋은 공허한 메아리일뿐이라는것이 민심의 평이다.

《서민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이것은 이전 보수집권세력의 부자감세로 인해 빚어진 남조선사회의 불평등과 더욱더 어려워지는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함축한 표현이다.

무려 1 100조원으로 육박하는 가계부채, 1 0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로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날로 령락해지는 반면 재벌들은 부자감세로 인해 점점 더 배를 불리우고있다.

그러나 현 보수집권세력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서민의 세금은 올리고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아이들의 무상급식과 보육예산도 없애버리고 공무원들의 년금도 잘라내는 등 서민들의 얄팍한 주머니를 털어내는 식으로 충당하려고만 하고있다.

남조선사회의 고질적인 부익부, 빈익빈현상과 사회적 불평등은 보수세력이 집권한 이후 부자감세 등으로 더욱 더 심화되였다.

오죽하면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알려진 외국의 한 교수도 《사회의 불평등이 서유럽, 일본보다 더 심하다.》고 우려를 표시하였겠는가.

그런가 하면 현재 남조선 권력층의 부정부패현상은 이전 집권세력을 더욱 릉가한다.

특대형 반인권 참사인 《세월》호침몰사건이후 생겨난 《관피아》에 대해서만 보자.

현재 남조선에는 《관료마피아》를 뜻하는 《관피아》가 부지기수이다.

선박안전검사와 감독을 저들의 리속을 채우는 공간으로 삼다가 끔찍한 비극을 빚어낸 《해피아》, 대법관퇴직후 변호사노릇을 하면서 불과 5개월동안에 무려 16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안대희와 같은 《법피아》, 정치인의 선거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후날 요직을 하사받는 《선피아》, 퇴물을 받고 법을 만들어주는 여의도의 《립피아》, 저들끼리 서로 싸고돌면서 거대세력을 형성한 옛 재무부 출신의 《모피아》, 산업통산자원부는 《산피아》, 금융감독원은 《금피아》, 국세청은 《세피아》, 교회와 언론은 《교피아》, 《언피아》…

그야말로 남조선의 권력층은 《부정부패종합백화점》, 마피아생산지이다.

이런 《관피아》의 뿌리는 그들을 거느린 《박피아(박근혜+마피아)》라는것이 남조선 각계층이 내린 진단이다.

《적폐와 부정부패를 바로잡겠다.》는 남조선 현 집권자의 말은 큰 도적이 작은 도적을 심판하겠다는 소리이니 자가당착이 아닐수 없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99%의 서민들을 쥐여짜내여 1%의 재벌들을 배불리우는 사회적불평등, 그로 인한 계급, 계층별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탄압의 총칼을 절컥이는 보수집권세력, 권력을 휘둘러 부정부패를 밥먹듯 하면서도 《신뢰》와 《평등》의 《국민대통합》을 운운하는 관료배들.

이들을 척결하자면 그 뿌리와 근원인 현 집권세력부터 갱신해야 한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의 요구이고 의지이다.

팽두이숙, 즉 대가리가 삶아지면 귀박죽도 삶아지기 마련이라고 뿌리를 들어내면 그 잡초는 명을 다하기 마련이니까…

서 철 수

파업으로 저물어가는 남조선

한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남조선사회는 도처에서 일어나는 각계의 파업으로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공무원년금제도개혁》을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대규모 파업이 련일 계속되고 민주로총 《공공운수로동조합 전국회장련합 학교비정규직본부》가 전국적규모의 총파업을 벌리였으며 농민단체를 포함한 각계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떨쳐나 사대굴종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들을 벌리고있다.

지난 1일에는 서울에서 12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적년금 개악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교원 총궐기대회》가 진행되고 공무원들의 얄팍한 돈주머니를 악착하게 털어내려는 당국의 《공무원년금제도개혁》을 반대하는 분노의 함성을 터뜨렸다. 이뿐이 아니다. 쌍룡차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은 해와 달을 이어 무려 5년째나 지속되고있고 철도로조와 택시운전사들의 파업투쟁도 사회의 이목을 끌고있다.

한마디로 남조선은 전역이 파업천지이고 파업으로 날이 밝고 파업으로 해가 저물고있다.

지난 시기에도 남조선에서는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파업이 계속 진행되여왔건만 갈수록 그것이 멈추어지지 않고 더 치렬해지고 남조선 전지역적범위로 확대되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두말할것없이 각계층 인민들의 생존권이 날이 갈수록 더욱 짓밟히고 민생이 최대로 악화되고있기 때문이다.

《유신》의 때가 묻은 현 《정권》이 발족한 이래 사회가 더욱 파쇼화되여 살기가 더 어려워진데다 특권층과 재벌들만을 살찌우려는 당국의 반인민적인 정책으로 하여 절대다수 근로대중은 이전보다 더 힘겨운 생활난에 시달리고있다.

남조선의 107만명 공무원들과 8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가족들을 분노시키고 항의행동에 떨쳐나서게 하고있는 《공무원년금제도개혁》만 해도 그렇다.

《공무원년금제도》는 남조선에서 1960년부터 도입된 것으로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근무기간 소득의 일정한 액수를 《국가》에 저축하였다가 정년퇴직이나 공무로 인한 사망, 질병 등으로 공무원을 그만두었을 때 《정부》로부터 생활비용을 보상받는 《로후복지》제도이다. 그런데 현 남조선당국은 《3포세대(련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가 고령화되여 공무원들이 저축하는 년금액수보다 퇴직자들이 받는 수당금의 액수가 늘어나 재정적자가 난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의 년금저축액을 현재보다 41% 더 올리고 《국가》가 부담하는 수당금은 34%나 줄이는 날강도적인 《공무원년금제도개혁안》을 공식 발표하였다.

가뜩이나 물가가 계속 높아지고있는 속에서 공무원들의 년금저축액수를 현재보다 더 높이게 되면 실질소득이 현저히 줄어들어 공무원근무기간 생활상 어려움을 겪게 될것은 물론 퇴직후 수당금액수마저 줄어들어 가정생계는 더욱 비참해질수밖에 없는것이다. 그러니 공무원들이 거리에 떨쳐나 분노의 함성을 터치지 않을수 없다.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은 하루만 일해도 년금을 받는 상황에서 일반 공무원들만 희생해야 하느냐.》, 《대기업과 재벌퍼주기로 만신창이된 국가재정적자의 원인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를 기어코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공무원년금마저 대폭 삭감하겠다고 칼을 휘두르고있다.》, 《800만 공무원가족들은 〈새누리당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쌀시장전면개방을 반대하여 농민들이 자기 손으로 피땀흘려 지은 낟알이 거의나 익어가는 논밭을 통채로 갈아엎은것도, 서울에 밀려올라와 련일 항의통성을 벌리고있는것도 당국의 사대매국적이며 반인민적인 책동을 그대로 놔두면 가뜩이나 령락할대로 해진 남조선의 농업이 망하고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채 짓밟히기때문이다.

생존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초보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현 남조선집권세력은 대기업들과 재벌들의 돈주머니는 무한정 불쿼주고 근로대중의 피땀어린 혈세는 악착스레 빨아내여 부정부패로 탕진하며 인민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리고있다. 그러니 삶의 벼랑끝에 선 로동자들이 아찔하고 위험한 고공철탑이나 기중기우에 올라가 수십일간이나 항의통성을 벌리고 지어 당국을 규탄하는 삐라를 뿌리며 몸에 불을 달아 투신하는 비극적인 일들까지 벌어지고있는것이다.

한줌도 못되는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서슴없이 침해하고 짓밟는 남조선사회는 그야말로 부자들에게는 천당이요, 근로하는 인민들에게는 생지옥으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날로 더욱 고조되는 파업을 비롯한 반 《정부》투쟁들은 집권《안보》와 한줌도 못되는 특권계층의 리익을 위해 인민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는 현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분노의 폭발이다.

현실은 고발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마구 유린하는 인권의 동토대, 암흑지대가 과연 어디인가고.

본사기자 서 희

교훈을 찾아야

고름이 살되랴 하는 속담이 있다.

저들이 먼저 불질한 연평도포사격도발사건을 분칠하고 동족대결에 악용하려는 남조선의 군부호전광들과 보수집권세력에게 꼭 맞는 소리다.

얼마전에도 남조선의 서울과 연평도 등지에서는 연평도포사격도발을 《기념》하는 《행사》라는것들이 벌어지고 거기서는 《최악의 도발》이니, 《응징》이니 하는 대결망언들이 연방 튀여나왔다.

참으로 돌부처도 앙천대소할 일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4년전의 연평도포사격도발은 북침전쟁연습인 이른바 《호국》훈련과정에 벌어진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무장도발이였다. 공화국군대의 수차례에 걸친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포사격도발로 대답한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분노에 찬 인민군대의 단호한 징벌을 받았다.

연평도가 화약내에 휩싸이게 된것은 전적으로 대결광신자들이 스스로 부른 화였다.

그런데도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그 누구의 《도발》이라 하는것도 언어도단이고 그 무슨 《응징》을 운운하고있는것은 더우기나 가소로운 일이 아닐수 없다.

가관은 불타는 연평도의 참호속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병들을 내세워 《승리한 전투》이니 뭐니 하고 인터뷰까지 조직한것이다.

늘씬하게 얻어맞고도 《승리한 전투》라니 뺨을 얻어맞고도 내가 때린것이니까… 했다는 아큐와 무엇이 다른가.

연평도포사격도발사건을 어떻게 하나 미화분식하고 동족대결에 악용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과 보수집권세력의 망동을 보니 신통히도 그들이 하내라고 자화자찬하며 반공화국적대시압살책동에 더욱 몰두하는 미국.

미국이라면 뒤간에 가는 모양까지도 따라하는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니 흰것도 검다고 뒤집는 날조나 매맞고도 때렸다고 하는 수법도 신통하게 흉내내게 된것이리라.

아마도 연평도에서 설맞은것 같다.

남조선의 군부호전광들이 수치스러운 연평도포사격도발을 빗대고 《응징》이니 뭐니 흰소리치며 계속 무엄한 도발에로 나아가다가는 또 어떤 단호한 징벌을 받을지 알수 없다.

남조선군부당국은 전쟁열에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고 연평도포사격도발사건의 교훈을 다시 곰곰히 되새겨보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정 혁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미술가들

민족의 성산 백두산을 처음으로 화폭에 담아

백두산은 민족의 성산이다. 조선민족이 태를 묻고 민족자주의 넋을 대를 이어 줄기차게 이어주는 백두산은 겨레모두의 가슴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오늘 공화국에는 백두산을 형상한 그림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지만 그 민족의 성산을 처음으로 작품에 담은 화가는 최연해이다.

일제가 조선을 완전히 강점한 1910년 1월에 평양의 소시민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어릴 때부터 미술에 취미가 있어 그림 그리는데 정신을 팔군 하였다.

상업의 길을 가라는 아버지의 요구도 뿌리치고 김관호가 운영하는 삭성회화연구소에 들어가 미술의 기초를 배운 최연해는 일본에서 1년간 미술공부를 하고 고향에 돌아와 자체로 미술공부를 하였다.

1928년에 첫 작품을 내놓은 그는 다음해에 유화 《녀인상》을 내놓았다.

1930년에 들어와서 일제의 탄압이 더욱 강화되고있던 사회적환경에서 근근히 살아가고있던 그는 1933~1935년 기간 유화작품들을 전람회에 출품시키였다.

1936년 유화 《촌에서》를 창작한 그는 1938년, 1942년에 개인미술전람회를 가지였고 8차례 미술전람회에 출품하였다.

그러나 그가 창작한 유화작품들은 대부분 사회적문제를 안고있는 인물성격이 없이 일반적인 생활주위의 사람들을 그린 인물초상습작에 불과하였다.

해방전 그는 세계관의 미숙성으로 하여 사회현실을 외면하고 목가적인 유화창작을 화가의 본태라고 생각하여왔다.

기분주의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생활관과 부르죠아미학관을 가지고있었던것으로 하여 사실주의미술의 문어구에서 헤매고있었다.

해방은 그에게 참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주었으며 미술의 사회적사명을 알게 하였다.

30대가 넘을 때에야 일제시기 전기간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미궁에서 헛된 붓을 들고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품팔이미술가로 살아왔는가를 절감하였다.

사회적인간의 존재가치를 옳게 깨달은 최연해는 해방직후 격변하는 사회정치적사변들과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새 민주조선건설로 들끓는 현실에 뛰여들었다.

1948년 미술가동맹 현역미술가로 창작활동을 하는 과정에 기념품공예도안과 제작과 지도를 직접 진행한 공로로 하여 1949년에 위대한 수령님의 표창장을 수여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그는 또한 1953년 항일혁명전적지조사단성원으로 4개월간에 걸쳐 중국동북지방을 답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항일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전적지와 사적지들에서 수많은 습작을 하였다.

최연해는 이를 계기로 혁명전통주제의 핵심미술가로 성장발전하게 되였다.

《우등불결에서 대원들을 교양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5), 유화 《고난의 행군》(1955), 《백두산》(1958) 등을 창작발표하였다.

그는 1956년부터 5년간 영화미술가로 활동하면서 예술영화 《광명을 찾아서》(1956), 《두만강》(1960), 《금강산 구룡연》(1962)을 창작하였다.

최연해의 창작활동을 통하여 공화국의 다심한 사랑과 지도의 손길밑에서만 미술가의 보람이 있고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있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새기게 된다.

해방후 그의 창작적특징은 무엇보다도 혁명적미학관이 형성발전한것이다.

유화 《우등불결에서 대원들을 교양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창작하게 된 동기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답사에 있었다.

1953년 12월 11일 그는 답사일기에서 이렇게 썼다.

《…밀영지에 어둠이 깃들고 우등불이 불꽃을 날리며 기세좋게 타오르면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밤가는줄 모르고 이야기를 듣군하였다. 이런 때이면 장군님께서는 애용하시는 물고뿌를 한손에 쥐시고 대원들에게 만경대고향집에 대해, 신음하는 조국과 인민에 대해, 세계정세에 대해 실로 많은것을 말씀하시였다. 대원들은 저마다 장군님 가까이에 다가앉았으며 이때에는 밀림의 바람소리조차 잠자듯 사위는 고요하고 오직 장군님의 저력있는 음성만이 들리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싸운 항일유격대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내용을 가지고 작품을 창작하리라 결심하였다.》

이 작품은 절세위인에 대한 무한한 흠모와 항일의 피어린 투쟁에 대한 열렬한 감동에서 출발하여 오래동안 무르익혀 완성하였다.

최연해의 창작적특징은 또한 민족의 성산 백두산을 비롯한 조국산천을 무한한 사랑과 시적감정으로 표현하였다는데 있다.

해방전시기 수십년간 시시껄렁한 추상표현주의수법에 빠져 감상적인 풍경화만 그리던 그가 백두산을 처음으로 유화로 숭엄하게 형상하였다.

그가 그린 풍경화들과 정물, 소설삽화, 영화미술, 공예들은 예술가로서의 창작적량심과 지혜를 다 바친 책임적인 열매였다.

그는 해방된 첫 시기부터 한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공화국의 문예정책과 로선을 진정으로 받아안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창작실천에서 보여준 화가였다.

예술가들의 참된 인생과 창작의 보람과 가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꽃펴날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후대들에게 보여준 화가 최연해의 작품들은 오늘도 예술적가치를 가지고 세월과 함께 길이 전해지고있다.

최 명 수

백 두 산

《조선의 오늘》홈페지가 곧 개설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날로 높아가는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양모란봉편집사는 《조선의 오늘》홈페지(WWW.dprktoday.com)를 새로 개설하게 됩니다.

홈페지는 12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평양모란봉편집사

《령통사복원 9돐기념 조국통일기원 및 의천대각국사 913주기열반다례재 북남불교도합동법회》봉행

11월 26일 개성 령통사에서 《령통사복원 9돐기념 조국통일기원 및 의천대각국사 913주기열반다례재 북남불교도합동법회》가 봉행되였다.

합동법회에는 북측에서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 교직자들과 령통사의 승려, 신도들, 남측에서 불교천태종 승려, 신도들이 참가하였다.

합동법회에서는 불교례식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으며 조국통일기원 북남불교도공동발원문이 봉독되였다.

연설자들은 북남불교도들이 힘을 합쳐 훌륭히 복원해놓은 령통사는 지금 통일도장으로서의 응당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있으며 북남사이에는 불신과 대결의 골이 깊어가고 6.15시대에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을 모독하고 짓밟는 용납 못할 행위들이 그치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북과 남의 불교도들은 통일보살의 사명감을 자각하고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실천행에 적극 나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공동발원문에서는 북남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자등, 법등으로 삼고 이 땅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용맹정진할 북남불교도들의 확고한 결의를 천명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자랑—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99간 살림집

평양민속공원에는 고려시기에 개성, 경기일대를 비롯한 평지대에 많이 세워져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널리 리용되여오던 99간살림집의 모형이 있다.

평양민속공원의 리현아강사는 이 99간살림집의 모형은 개성시 방적동에 있는 99간살림집을 1:1의 비률로 그대로 옮긴것이라는데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었다.

《이 99간살림집에는 진짜 방이 99간이나 되는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9라는 수자를 아주 크게 여겨왔답니다. 〈구척장신〉, 〈아흔아홉굽이〉, 〈구천에 사무치다〉라는 말과 같이 크다는 의미의 9라는 수를 두개 붙인 99간이라는 말은 세도량반들이 쓰고살던 수십간이나 되는 집을 의미하였습니다. 이 99간살림집은 집이 아주 크다는 의미로 부른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혹은 옛날에 방과 방사이의 벽을 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99간이라는것은 방과 방사이의 간벽이 99개라는 뜻으로 리해할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99간이라는것은 집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방과 방사이의 벽이 99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99간살림집에는 방이 몇개나 되는가요?》

《여기에는 총 33칸의 방과 주방설비가 갖추어진 부엌, 창고들과 한증칸도 있습니다. 고려시기에 이름난 솔집한증칸을 그대로 되살린것인데 소나무한증을 즐겨하던 우리 민족의 풍습을 담은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리현아강사는 우리에게 이 99간살림집과 관련한 일화도 이야기해주었다. 1900년도에 서울의 인사동에 《태화정》이라는 99간살림집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령의정의 벼슬에 타고앉아 세도를 부리던 김태홍의 집이였다.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는 엄격한 신분제도하에서 집의 칸수와 규모에 따라 량반집, 백성집이 제정되여있었다. 하지만 봉건사회말기에 신분제도가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돈 많은자들도 행세를 하기 위해 신분에 관계없이 큰 집을 지어놓고 살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돈이 많았던 중인 신분의 림상현이가 허세를 부려 령의정 김태홍의 집과 꼭 같은 집을 지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안 김태홍은 당장 헐어버리라고 야단하였다. 돈이 아무리 많고 신분제도가 어느 정도 허물어져간다고 해도 중인이 량반세도가와 꼭같은 집을 쓰고사는것을 허용할수 없었던것이다. 림상현은 집을 헐어버리자니 들어간 품이나 돈이 너무도 아까워 골머리를 앓고있었다. 하여 생각을 거듭하다가 병조판서를 하던 김병조와 짜고 집의 기둥을 한자씩 잘라서 낮추는 방법을 택하게 되였다. 그랬더니 담장에 가리워 집의 규모가 보이지 않게 되였고 림상현은 겨우 욕을 면할수 있었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림상현의 집을 가리켜 《납작태화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본사기자 고영숙

겨울철에 피부가 갈라터지면

❖ 겨울철이면 피부가 마르고 튼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뜨거운 물에 5~6분간 잠그면 피부가 퍼지여 부드럽게 된다. 이때 물고기간유를 갈라터진 자리에 바른다. 매일 밤 한차례씩 일주일간 계속하면 아픈것이 없어진다.

❖ 식초와 글리세린을 5 : 1의 비례로 섞어 매일 두차례씩 갈라터진 피부에 골고루 발라주면 살결이 부드러워지고 윤택해진다.

❖ 감자 한개를 푹 삶아서 껍질을 벗기여 짓찧으면 찰떡처럼 된다. 이것을 와셀린에 버무려 깨끗한 병에 넣어두고 하루 1~3차례 발라주면 인차 낫는다.

❖ 닭알 2알을 삶은 다음 노란자위만을 솥에 넣고 물과 함께 노란기름처럼 될 때까지 달인다. 이것을 하루 2번씩 발라주면 상처가 3~4일내로 다 낫는다.

❖ 껍질이 거멓게 된 바나나 한개를 주무럭주무럭하면 살이 부서져 보드랍게 된다. 끝쪽에 작은 구멍을 내고 바나나를 꼭 누르면 살이 치약처럼 흘러나온다.

이것을 손발이 튼 자리에 놓고 비비면 피부가 매끈매끈해진다. 처음은 좀 아픈감이 나지만 이 방법을 몇번만 하면 상처가 인차 낫는다.

본사기자

사화

양호당집과 개성편수 (8)

글 정의선, 그림 김윤일

《한양선비, 저 노래가 무슨 뜻인지 알겠나?》 지부사로인이 물었다.

《뜻이 깊은듯 한데 잘 모르겠소이다.》

《뜻이 깊지. 소나무 란간이란 송헌을 말하고 채마전이란 포은선생을 말하네. 포자가 채마전포자이니까. 이 노래 가사를 어느 녀인이 썼다고 하더군. 저 사람들이 흥이 나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도 시조 한수씩 읊어보세. 내 한수 먼저 읊겠네.》

지부사로인이 정몽주를 찬양하는 시조를 읊었다. 그 다음 유기장군이 읊었는데 그것은 최영장군을 찬양하는 시조였다.

《자, 그럼 한양선비도 한수 읊게.》 지부사가 지명했다.

방원은 시조 한수씩 읊자고 할 때부터 속궁냥으로 글줄을 더듬어보았으나 갑자기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다.

이런 좌석에서는 정몽주를 찬양하는 시조가 제격이겠는데 하고 생각하다가 문득 자기가 1392년에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기 위하여 시조 한수를 읊었을 때 정몽주가 대답하여 지은 시조가 생각났다. 그래서 좀 주밋거리다가 그 시조를 읊었다.

이 몸이 죽고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고 넋이야 있고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줄 있으랴

방원이가 이 시조를 읊자 방안사람들은 매우 숭엄한 표정을 지었다.

《정생은 대문장가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시조를 읊었소. 정말 포은선생의 후예답소.》

《정말 대단하오, 대단해.》

모든 사람들이 추어주는데 방원은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몰랐다.

《여러분, 이 시조는 내가 지은것이 아니라 바로 포은선생이 지은것을 내가 읊었을뿐이오이다.》

방원은 얼결에 이렇게 말해버리였다.

《아니, 포은선생이 언제 그런 시조를 지었소? 그 시조를 들어보니 포은선생이 누구의 협박을 받거나 회유하려 하자 지은것 같애.…》 하고 그 시조에 대해 이들이 추리하는것을 보고 방원은 아차 내가 또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쳤다.

정몽주가 자기 아버지 리성계의 병문안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그를 붙잡고 연회장에 앉히고 그의 심중을 떠볼 때 정몽주의 이 대답시조를 듣고 그를 없애치워야겠다는것을 결심하던 일이며 조영규 등에게 지시하여 그를 살해하던 일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정몽주가 이날 읊은 시조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그날 연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 일체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단단히 오금을 박아놓은 일도 생각났다.

그래서 비밀이 고수되여왔었는데 자기의 불찰로 그만 정몽주의 절명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였다.

여기까지 생각한 방원은 이 시조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여기 모인 놈들을 몽땅 잡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급기야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여러분, 내 정신없이 여기서 오래 지체하였소이다. 내 급한 일이 있어서 잠간 다녀오겠소이다. 그때 또다시 흥취를 돋구어봅시다.》

《급한 일로 어디로 간단 말이요?》

《선비님들, 내 보짐을 말기면서 점심때까지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시간이 지나갔소이다. 또 주안값도 그 보짐을 가져와야 갚을수 있소이다.》

방원은 방문을 열고 변씨를 불러 《내 보짐을 가지고 와서 음식값을 물겠네. 그 대신 신표로 이걸 받아두게.》 하면서 허리춤에 찼던 장도를 풀어주었다. 대단히 값진 물건이였다.

이것은 방원이가 여기 사람들을 안심시켜 더 오래 붙잡아놓으려는 계교였다.

변씨가 방원이를 배웅하는 척하면서 큰길까지 나가 그가 가는쪽을 살펴보았다.

이때 군복차림의 무장이 말을 급히 몰고오다가 방원의 앞에 멎어서더니 말에서 내려 그에게 깍듯이 례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주고받는것 같더니 방원은 말고삐를 받아쥐고 날파람있게 말잔등에 올라탄 후 남쪽으로 달리였다. 그뒤를 장군복차림의 사나이가 부지런히 따라갔다.

이외의 광경에 놀란 변씨는 말이 어디로 가는가를 살펴보았다. 한양선비는 말을 곧바로 왕궁으로 몰고들어갔다.

변씨는 방망이질하듯 가슴이 떨리였다. 급히 편수국집으로 돌아와 선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빨리들 피하라고 독촉하였다.

변씨의 급해하는 말을 들은 유기장군은 《아, 그놈이 방원이였구나. 틀림없어.》 하고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쳤다.

뚱뚱보와 감

감은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다. 감은 고혈압병, 심장병, 당뇨병 등 여러가지 질병의 예방치료에 널리 리용되고있다.

감의 약효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고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고혈압병, 심장병, 당뇨병에 다 걸린 사람이 있었다. 그는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한 뚱뚱보였다.

남편의 몸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자 그의 안해는 의원을 데려왔다. 환자의 몸을 구체적으로 진찰한 의원은 그의 안해에게 안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니 남편을 충분히 휴식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어느날 의원의 권고대로 휴식을 하면서 마당가를 거닐던 뚱뚱보는 집앞에서 자라고 있는 감나무에 새로 돋아난 잎사귀를 보게 되였다.

워낙 식성이 좋은데다가 심심한터라 그는 무작정 감나무잎 몇개를 뜯어 입에 넣었다. 맛이 괜찮았다.

그날부터 그는 산보하러 나가서는 장난삼아 매일 감나무잎을 몇개씩 뜯어먹군 하였다. 그랬더니 두달 지나서부터는 병세가 나아지기 시작하였다.

하루는 의원이 찾아왔다가 완쾌되여 전혀 딴 사람이 되다싶이 한 그를 보자 깜짝 놀라서 무슨 약을 썼는가고 물었다.

그는 감나무잎을 먹었다고 했다.

그때부터 감나무는 잎, 열매 할것없이 건강증진에 효과있는 재료로 사람들의 식생활에 리용되게 되였다고 한다.

고려의학에서는 감이 열을 내리우고 폐를 부드럽게 하며 갈증을 없애고 술독을 풀며 장의 수렴작용을 강화하며 설사를 멎게 하고 식욕을 돋군다고 한다.

본사기자

검은색옷의 색갈이 날았을 때

검은색옷을 자주 빨면 색갈이 난다.

이런 때에는 맥주를 물에 타서 옷을 잠간 담그었다가 물기를 빼고 그늘에 말리운다.

그러면 처음때처럼 검은색이 선명해진다.

본사기자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 집 위 원 회